

## 추가공모 지원사업 심사평

### <공연티켓 1+1 지원 공모사업(추가 공모)>

이번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서 연극, 뮤지컬, 음악, 전통, 무용, 다원 및 대중 등 전 장르를 막라하여 총괄 심사하였다. 전체 181개 작품이 신청하여 이 중 조건부 14개 작품을 포함 27개 작품이 탈락되어 154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미 1, 2차에 걸쳐 지원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청 예술단체나 주관기관, 심사평가위원등의 1+1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수월성은 물론 그간의 시행상 문제점 등을 감안한 심사기준 보완 등 적절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추가지원사업은 1, 2차 시행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도에 미치지 못한 예술단체등에 추가 신청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기회균등과 수혜 예술단체의 균형있는 지원으로 공연 시장 활성화 및 관객의 공연 관람 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래의 사업 취지를 충실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심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채점 전에 심의위원 간 객관적인 정보 공유와 토론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사업수행 역량을 감안하여 심의하였다.

그 외 단체의 티켓 가격 및 좌석 수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관객과 공연 단체의 이해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이번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서 음악, 무용, 전통, 다원, 대중예술분야 심사대상은 총 181건으로 연극분야 84건, 뮤지컬분야 18건,

음악분야 39건, 전통분야 8건, 무용분야 4건, 다원,대중분야 28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한도 초과 4건, 착오에 의한 중복신청 7건, 자체포기 1건, 공연조건 미비 1건, 필수증빙 미비 13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판단 유보 1건등 총 27건에 대해 부적격 단체를 탈락시켰고, 이중 미비서류 보완 등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14건을 포함시켜 최종 기한 내 보완 가능한 예술단체를 구제하여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2곳의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인데 2곳 중 한 곳만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조건부 선정하여 한 공연장의 공연은 승인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한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심의기준은 예술성(20%), 티켓가의 적정성(30%), 프로그램 실현 가능성(30%), 단체활동 실적(20%)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별 평가등급에 의해 개별 평가하고 최종 합산 결과에 의해 집계하였다.

본 지원사업은 세월호 및 메르스 여파로 인한 침체된 공연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높이는 한편 국민 문화향유 활성화등 공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신청 작품 중 신청기관이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 신청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미적용시 그 근거 또한 애매한 사례들이 있어 차후에는 신청기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자격요건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연티켓1+1지원사업 추가 공모 심의위원장